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Alfred Tennyson의 *In Memoriam*에
나타난 상실, 회의, 그리고 극복
과정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旻珍

2022年 2月

Alfred Tennyson의 *In Memoriam*에 나타난 상실, 회의, 그리고 극복 과정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許 允 德

金 旻 珍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年 12月

金旻珍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21年 12月



<국문초록>

Alfred Tennyson의 *In Memoriam*에 나타난 상실, 회의, 그리고 극복 과정에
관한 연구

金旻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指導教授 許允德

본 논문에서는 테니슨(Alfred Lord Tennyson, 1809-1892)의 시에 나타난 상실과 회의의 양상 및 극복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테니슨에게 상실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본 후, 상실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헬럼의 죽음으로 테니슨은 그의 인생, 즉 미래를 상실한 것과도 같은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상실을 극복할 같은 순간에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깊은 상실에서 희망이라는 빛을 보는 회의와 회복의 순환적 극복 과정을 경험한다. 즉, 그는 마지막까지 인간과 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인 현실과 내면의 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혼 불멸성에 대한 그의 의구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되찾는다.

테니슨은 『인 메모리엄』(*In Memoriam*)을 통해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믿음, 희망, 그리고 진리로 끝나는 정신적 성장 과정을 전달한다. 그는 이러한 극복 과정에서 헬럼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슬픔과 상실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마침내 그는 영혼불멸의 의심을 극복하고 사랑과 믿음만이 인간의 존재를 믿는 힘을 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나아가 그는 지식과 이성의 눈이 아닌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영혼불멸과 신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테니슨은 그의 개인적 극복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인간이 사랑으로 상실을 극복하고, 어둠을 통해 빛을 볼 수 있으며, “정직한 의심”(honest doubt)을 통해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노래한다.

테니슨은 인간이 상실과 의심을 마주하고 이를 극복할 때 “영혼의 길”(The Way of the Soul)을 찾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상실과

희망, 삶과 죽음, 종교와 과학의 수용과 조화를 통해 이러한 대조적인 존재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테니슨은 개인적인 상실의 경험을 인간이 마주하는 보편적인 주제로 심화시키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실의 경험이 그들을 더 성숙한 존재로 발전해 나가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희망을 전달한다.

목 차

I. 서 론	1
II. Tennyson의 상실 및 회기와 관련된 고뇌	5
1. 상실과 고뇌의 형태	5
2. 회기의 양상	23
III. 영혼불멸의 회기 극복	34
IV. 결 론	55
Bibliography	58
Abstract	61

I. 서론

영국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age)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난 격동의 시대이다. 이 시기에 도래한 새로운 과학과 물질주의로 인해 빅토리아인들은 인간에 대한 전통적 신뢰의 상실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품게 된다.¹⁾ 라이엘(Charles Lyell)과 다윈(Charles Darwin)의 지질학과 진화론은 신의 사랑과 인간의 존재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빅토리아인들에게 종교적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빅토리아인들의 종교적 믿음과 갈등을 이루는 과학적 지식으로 인해 그들은 자연과 우주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존 가치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시인 테니슨(Alfred Lord Tennyson, 1809-1892)은 당시 영국인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가치관과 종교관에 대한 회의와 믿음의 딜레마, 그리고 극복 과정을 시로 표현한다.

테니슨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 그리고 영혼불멸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둔 시인이다. 테니슨은 친구 헬럼(Arthur Henry Hallam)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17년간 시인의 상실과 애도의 과정을 『인 메모리엄』(*In Memoriam*)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인 메모리엄』 속 시들은 서시(Prologue)로 시작하여 발시(Epilogue)로 끝나며, 각 시의 제목 옆에는 시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기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테니슨이 시를 창작한 시간적 순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는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친구를 잃은 상실과 극복 과정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총 133개의 개별 서정시로 나타낸다. 그는 서시를 시작으로 시의 전반적인 주제를 표현한 후, 본시를 통해 친구를 잃은 상실감, 영혼불멸에 대한 회의를 표현한다. 또한, 그는 영혼 불멸성에 대한 그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슬픔, 상실, 회의라는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는 희망적인 모습을 제시한다. 마침내 테니슨은 상실을 통해 사랑의 영원성을, 회의를 통해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영혼불멸이라는 믿음의 회의와 극복 과정을 다룬 『인 메모리엄』은 “지난 2세기 동안 영국이 만들어낸 가장 고상한 기독교 시”²⁾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엘리엇(T.S. Eliot)은

1) Jerome H. Buckley, *The Victorian Temper: A Study in Literary Culture* (New York: Vintage Books, 1964), p. 2.

2) Laurence W. Mazzeno, *Alfred Tennyson: The Critical Legacy* (New York: Camden House, 2004), p. 16.

『인 메모리엄』에 나타난 테니슨의 믿음과 의심을 “믿음은 하찮은 것이지만, 의심은 강렬한 경험”³⁾이라고 주장한다. 엘리엇의 주장은 테니슨이 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벤슨(A.C. Benson)은 “비록 『인 메모리엄』이 전체적으로 강한 기독교적 느낌을 주지만, 나는 확실히 시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테니슨은 인간이 경험하는 상실과 정신적 고뇌, 그리고 극복 과정을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듯 종교적으로 사색하기보다는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려는 그의 믿음을 솔직하게 시로 표현했고, 이것은 『인 메모리엄』이 시대를 거슬러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찬사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헬럼(Hallam Tennyson)은 “이 작품(『인 메모리엄』)은 실제 전기가 아닌 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항상 그 자신을 위해 말하는 작가가 아니라 ‘그를 통해 말하는 인류의 목소리’이다”⁵⁾라고 주장한다. 즉, 『인 메모리엄』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시인 자신의 정서 변화 과정을 반영한 자서전적인 시이자, 종교와 믿음의 회의와 극복 과정을 보여주는 종교적 시이다.

테니슨은 친구이자 지지자, 동생의 약혼자였던 헬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그는 그가 느끼는 혼란, 절망,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내적 회의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자 자연을 바라본다. 이에 엘리엇은 “그 낯선 추상인 ‘자연’은 순간적으로 테니슨에게 신 또는 여신이 된다. 영혼불멸에 대한 희망은 이 세상의 점진적이고 꾸준한 발전으로 혼동되고 있다”⁶⁾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테니슨이 자연, 즉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등장으로 인해 영혼불멸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고, 그가 더 깊은 슬픔에 빠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테니슨은 이러한 고뇌의 과정을 통해 영혼불멸이라는 믿음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 시인이다. 코스렛(Tess Cosslett)은 “자연의 메시지는 오직 ‘파괴’이고… 테니슨은 잘못된 질문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신의 사랑과 인간의 불멸에 대한 자연적인 증거를 찾길 기대하는 것 같다”⁷⁾라고 비평한다. 그러나 종교와 자연을 통해 해답을 얻고자 하는 테니

3) T.S. Eliot, *In Memoriam, Modern Critical Views: Alfred Lord Tennyson*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p. 200.

4) A. C. Benson, *Alfred Tennyson* (New York: E.P. Dutton and Co., 1907), p. 173.

5) Timothy Peltason, *Reading In Memoriam* (New Jersey: Princeton UP, 1985) p. 12.

6) Eliot, p. 16.

7) Tess Cosslett, *The Scientific Movement and Victorian Literature* (New York: The Harvester Press, 1982), p. 53.

슨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인간과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의 화해를 통해 그의 불신을 극복하고 ‘더 강한 믿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⁸⁾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상실과 절망에 빠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혼불멸의 믿음과 자연이라는 과학적 지식의 조화를 통해 믿음을 되찾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조화를 통해 그는 마침내 그의 예술과 직관, 그리고 지식을 수용하여 믿음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헬럼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세상에 평화와 안식이라는 해결책을 찾는다.⁹⁾ 즉, 테니슨은 시를 통해 상실과 회의,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의 내적 충돌을 털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고뇌의 과정을 통해 상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회복하는 “영혼을 찾는 과정”(The Way of the Soul¹⁰⁾)을 제시한다.

『인 메모리엄』은 테니슨의 삶에 등장한 개인적,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그의 상실이 승화되는 과정을 서정적으로 보여준다. 친구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의 상실과 회의는 인간의 영혼 불멸성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되며, 끊임없는 의심과 고뇌의 과정을 통해 그는 궁극적으로 죽음이란 인간의 마지막이 아닌 인간의 진화를 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가치와 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며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다. 따라서, 그는 『인 메모리엄』을 통해 상실과 죽음의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인 극복 과제라는 주제로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삶의 진리를 노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테니슨이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상실과 희망, 그리고 과학과 신앙이라는 양립 요소들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고뇌와 극복의 과정을 중심으로 『인 메모리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인 메모리엄』에 나타난 테니슨의 상실 및 회의와 관련된 고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테니슨의 상실 원인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 후, 그의 상실과 고뇌가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테니슨이 상실과 고뇌의 시기를 거쳐 믿음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영혼 불멸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시를 통해 괴로움과 어두움, 그리고 의심과 죽음에 대해 고심한 후에 영혼은 인간에 대한 강하고 변함없는 신의

8) David Daiches, *God and the Poets* (Oxford: Clarendon Press, 1984), p. 112.

9) Jerome H. Buckley, *The Growth of a Poet* (Cambridge: Harvard UP, 1974), p. 25.

10) A.C. Bradley, *A Commentary on Tennyson's In Memoriam* (London: MacMillan, 1902), p. 27.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¹¹⁾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테니슨은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와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래함으로써, 불안정하고 회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과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11) Hallam Tennyson, *Alfred Lord Tennyson: A Memoir by His Son, Vol. I* (London: MacMillan, 1897) 이하 *A Memoir*으로 약기하고 페이지를 표시하겠음.

II. Tennyson의 상실 및 회의와 관련된 고뇌

1. 상실과 회의의 형태

테니슨이 살았던 19세기 초 영국 빅토리아 시대는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던 혼란의 시대이다. 특히, 당대 물질주의와 과학적 이론으로 인해 기존의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흔들리고 있었다. 데이비스(Philip Davis)는 빅토리아 시기를 “역설적이게도,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적 현상은 종교적 의심, 즉 사람들이 불신을 경험하는 삶의 불안감¹²⁾”이라고 묘사한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 중반에 등장한 라이엘과 다윈과 같은 진화론자들의 생물학적, 지질학적 발견은 빅토리아인들에게 인간의 기원과 그의 역할, 그리고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¹³⁾ 테니슨은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종교와 영혼불멸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친구 헬럼(Arther H. Hallam)의 죽음으로 인해 이러한 그의 의문과 회의가 한층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테니슨의 의혹은 19세기 모든 영국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공통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과학적 발전과 가치관의 혼란은 빅토리아인들의 기존 생활 양식, 특히 그들의 종교적 믿음에 큰 갈등과 의심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1840년대부터 시작되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19세기에 들어서 절정에 다다른다.¹⁴⁾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혼란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대다수 빅토리아인들의 기독교적 신념에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테니슨은 당대의 종교가 시민들에게 과학적 이성주의로 인해 믿음이 변질되어가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방법 또는 심리적 위안을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과 영혼의 존재를 둘러싼 종교와 과학 간의 끝없는 충돌과 논쟁은 19세기의 혼란을 잠재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시 빅토리아인들에게는 시인이 신념과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움직임처럼 보였다.¹⁵⁾ 이에 테니슨은 개인적 상실과

12) Philip Davis, *The Oxford English Literary History. Vol. 8: 1830-1880 The Victorians* (Oxford: Oxford UP, 2002), p. 101.

13) K. W. Gransden, *Tennyson: In Memoriam* (London: Edward Arnold, 1964), p. 7.

14) Martin Hewitt, “Why the Notion of Victorian Britain Does Make Sense,” *Victorian Studies, Vol. 48, No. 3* (Spring 2006), p. 422.

15) Alan Sinfield, *Alfred Tennyson* (Oxford: Basil Blackwell, 1986), p. 57.

회의, 그리고 고뇌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믿음이 조화를 이룰 방법을 제시한다.

헬럼의 죽음을 원인으로 시작된 테니슨의 상실과 회의는 삶의 의미와 죽음이라는 보편적이며 종교적인 주제로 더 깊어지게 된다. 테니슨은 그의 이상향인 헬럼의 모습을 떠올리며 슬픔을 극복하려 하지만, 그와의 추억은 시인의 공허한 현실을 부각하는 상실의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은 테니슨의 가치관과 인생을 흔들 정도의 큰 공허함을 주지만, 그는 시 창작을 통해 그의 상실과 회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자신의 상실감을 “행복한 연인,”(happy lover¹⁶)[Sec. 8: 1] “과부,”(my widow'd race)[Sec. 11: 20] “신부”(maiden)[Sec. 40: 3]와 같은 결혼의 형태에 비유하며, 소중한 이의 부재로 인한 그의 절망을 강조한다. 결국, 테니슨은 친구의 죽음을 통해 깊은 상실과 절망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고 삶의 가치에 대한 회의에 빠지며 영혼불멸과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테니슨은 1809년 목사인 아버지 조지 테니슨(George C. Tennyson)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해 나간다.¹⁷ 1827년 그는 캠브리지의 트리티니 대학(Trintiny College)에 입학한 후 헬럼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은 테니슨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헬럼은 테니슨의 정신적, 문학적 지지자로서 서로의 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한 토론을 통해 깊은 우정을 쌓아나간다. 또한, 이 둘은 캠브리지 대학생들의 토론 모임인 사도회(The Apostles)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 시절 테니슨은 종교적 회의와 우울함에 빠져있기도 했지만, 헬럼의 도움을 통해 다양한 문학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그 방에서 한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여 앉아, 철학과 예술,
노동, 그리고 변하는 시장,
그리고 나라의 모든 사회과학을 토론했다.

16) Alfred Tennyson, *The Poems of Tennyson*, ed. Christopher Ricks (New York: W. W. Norton, 1969), 이하 인용되는 테니슨의 시는 이 시집에 의하여 인용하고, 이후 인용 작품의 출처는 인용문의 괄호 안에 편수(Sec.)와 행수를 밝히도록 함.

17) Marshall MacLuhan, *Alfred Lord Tennyson: Selected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p. 6.

Where once we held debate, a band
 Of youthful friends, on mind and art,
 And labour, and the changing mart,
 And all the framework of the land, (87: 21-24)

대학 시절 헬럼과 테니슨은 삶에 대한 심오한 주제부터 과학에 대해서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들은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인류를 향한 믿음을 통해 19세기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당대의 종교적 신념과 조화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테니슨과 헬럼은 인류가 진화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인종’(a higher race)[Sec. 118: 14]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위대한 종족’(that great race¹⁸⁾)의 출현이 신의 계획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헬럼의 죽음은 종교와 과학의 조화, 그리고 인류의 발전이라는 테니슨의 믿음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테니슨은 1833년 헬럼이 죽은 후 캠브리지로 다시 찾아가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지혜와 열정이 넘쳤던 그의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

인간이 지닌 의심을 빼앗고 내던질
 치품천사의 지혜와 힘
 열띤 토론 중에 듣는 이들을
 앞지르던 감동 넘치는 설득력

Seraphic intellect and force
 To seize and throw the doubts of man;
 Impassion'd logic, which outran
 The hearer in its fiery course; (109: 5-8)

그는 헬럼을 인간을 뛰어넘는 신과 같은 지적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다. 헬럼은 테니슨처럼 인간과 동등한 존재가 아닌 다른 차원의 신성하고 위대한 존재, 즉 인류의 진화를 증명하는 “더 높은 인종”과 유사하다. 테니슨은 시를 통해 헬럼의 뛰어난 재능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아름답고 진솔하게 묘사하며 찬사를 보낸다. 또한, 시인이 헬럼의 인

18) John D. Jump, *Writers and Their Background: Tennyson*. (London: Bell & Sons, 1973), p. 104.

품을 찬양하는 시를 5편[Sec. 109-113]으로 나누어 창작했다는 점에서 그가 헬럼을 깊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대와 가장 가까운 나는 따로 앉아서,
그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겼다.
그 품위 있는 재치, 그 훌륭한 재주,
그것이 그대의 것이었기에, 난 그것을 더 사랑했다.

While I, thy nearest, sat apart,
And felt thy triumph was as mine;
And loved them more, that thy were thine,
The graceful tack, the Christian art: (110: 13-16)

테니슨은 헬럼의 승리를 함께 즐기기보다는 옆에서 바라보는 것을 선택한다. 이는 마치 신을 숭배하는 신자의 모습과 유사하다. 테니슨은 헬럼의 절친한 친구로서 그의 옆에서 그의 “재치”와 “재주”를 바라보기만 한다. 즉, 그에게 있어서 헬럼은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에 헬럼의 죽음은 시인의 세상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이 둘의 우정은 헬럼과 테니슨의 여동생 에밀리(Emily Tennyson)가 1833년 봄에 약혼함으로써 가족으로 엮인 더 깊은 관계가 된다. 그러나 테니슨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한다. 1833년 9월 초, 헬럼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요양차 유럽으로 가지만, 9월 15일 비엔나의 한 호텔에서 죽음을 맞는다. 헬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테니슨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누군가가 쓰기를, '다른 친구들이 남아있다,'
'죽음이란 인간에겐 흔한 일'이라고
...
죽음이 흔하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사별을
덜 슬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슬프게 하니

One writes, that 'Other friends remain,'
That 'Loss is common to the race'-
...
That loss is common would not make

My own less bitter, rather more: (6: 1-2, 5-6)

헬럼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테니슨은 끝없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된다. 시인의 형인 찰스(Charles Tennyson)는 “헬럼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테니슨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뒤흔들었고, 슬픔의 처음 몇 달 동안 테니슨은 종종 죽음을 갈망했다¹⁹⁾”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테니슨이 친구이자, 가족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헬럼의 죽음으로 인해 우정과 추억, 사랑 모두를 상실하게 되고, 그가 인생의 의미와 영혼불멸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헬럼의 유해는 1834년 1월 그의 외가 마을 클레브던(Clevedon)에 묻힌다. 그러나 테니슨은 16년이 지난 1850년이 되어서야 그의 무덤을 방문한다. 이것은 그가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고향 링컨셔(Lincolnshire) 언덕 위에서 먼바다를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헬럼이 배를 타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만 같은 환상에 빠진다. 그는 헬럼이 그의 곁으로 돌아온다면 그가 느끼는 슬픔, 상실, 고독, 의심 등의 복합적이며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말한다; ‘결국 그가 오나, 내 친구가?’

이것이 내 모든 근심의 끝인가?’

그러나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슬픈 소리

‘이것이 끝인가? 이것이 끝인가?’

And saying; ‘Comes he thus, my friend?’

Is this the end of all my care?’

And circle moaning in the air:

‘Is this the end? Is this end?’ (12: 13-16)

헬럼이 바다를 건너 금방이라도 그의 곁으로 돌아올 것만 같지만, 테니슨은 헬럼의 죽음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는 “끝”(the end)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큰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누구보다 지혜

19) Charles Tennyson, *Tennyson* (London: Routledge, 1976), p. 145.

롭고 재주 넘치던 헬럼의 삶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리자 시인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당시 테니슨에게 남은 것은 헬럼의 끝을 알리는 “슬픈 소리” 뿐이다. 결국, 테니슨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계기로 삶의 의미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고뇌와 의심으로 방황하게 된다.

테니슨은 헬럼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홀로 런던의 워폴가(Wimpole Street) 67번지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한다. 헬럼이 없는 집은 시의 제목 「어두운 집」(“The Dark House”) 처럼 사람의 온기나 생기 없이 어둡기만 하다. 또한, 헬럼의 집을 중심으로 집 안과 밖의 분위기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아침의 거리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분주한 소리가 들리지만, “어두운 집”은 집 주인 헬럼의 부재로 인해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공허하기만 하다.

어두운 집, 나 다시 한번 그곳에 선다.
길고도 사랑 없는 길가에,
내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리던 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본다, 한 손길을 기다리며,
...
그는 여기에 없다; 하지만 저 멀리
생명의 소음은 다시 시작되고,
괴기스럽게 쏟아지는 이슬비 속으로
텅 빈 거리에 공허한 하루가 깨어난다.

Dark house, by which once more I stand
Here in the long unlovely street,
Doors, where my heart was used to beat
So quickly, waiting for a hand,
...
He is not here; but far away
The noise of life begins again,
And ghastly thro' the drizzling rain
On the bald street breaks the blank day. (7: 1-4, 9-12)

테니슨은 헬럼의 자취가 남은 집을 방문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어둠과 이슬

비가 쏟아지는 “공허한 하루”라는 현실이다. 이러한 텅 빈 삭막한 런던 거리의 풍경묘사를 통해 그는 자신의 정서, 즉 상실감을 활성화하며, 현실화시키고, 상징화한다.²⁰⁾ 이것은 “어두운 집,” “텅 빈 거리,” “사랑 없는 길가”라는 풍경묘사가 테니슨의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시인이 헬럼의 집을 방문한 시기는 저녁이기 때문에 집과 거리가 어둡고 공허하기도 하지만, 집에는 헬럼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삭막함과 사랑의 부재가 절실하게 느껴진다²¹⁾. 즉 “어두운 집”은 헬럼과의 행복한 추억을 상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친구의 부재를 강조한다. 아침이 되어 거리에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지만, 테니슨에게 헬럼이 없는 런던 거리는 그저 텅 빈 공허한 현실일 뿐이다. 이러한 집 안과 거리의 대조적인 풍경묘사는 과거와 현실 간의 괴리를 나타내며 시인에게 위로와 안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테니슨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자신의 모습을 “키를 잃어버린 배”(a helmless bark)에 의지 없이 무력하게 앉아 있는 “어둠의 노예”(bondsmen to the dark)와 같다고 표현한다. 배의 목적지이자 인생의 즐거움이었던 친구 헬럼을 잃은 테니슨은 무기력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거나 삶의 의지를 되찾으려는 노력조차 부질없다고 말한다.

잠에게 나는 나의 모든 힘을 주어버리고
 나의 의지는 어둠의 노예가 된다.
 나는 키 없는 배에 앉아서
 마음으로 명상하며 말한다.

오 가슴이여,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너는 네 소망을 잃어버렸을 텐데
 너는 가까스로 묻는구나,
 ‘나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To Sleep I give my powers away;
 My will is bondsman to the dark;

20) Basil Willey, *More Nineteenth Century Studies: a Group of Honest Doubters* (London: Chatto & Windus, 1956), p. 93.

21) John D. Rosenberg, “Stopping for Death: Tennyson’s *In Memoriam*,” *Victorian Poetry*, Vol. 30, No. 30 (Fall 1992), p. 297.

I sit within a helmless bark,
And with my heart I muse and say:

O heart, how fares it with thee now,
That thou should'st fail from thy desire,
Who scarcely darest to inquire,
'What is it makes me beat so low?' (4: 1-8)

“잠,” “어둠,” “키 없는”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은 활력, 따사로움, 새로움을 뜻하는 이 시의 제목 「아침」(“Morning”)과 대조되는 차갑고 무기력한 시인의 감정을 강조한다. 테니슨에게 있어서 헬럼의 죽음은 그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삶을 행복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냉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헬럼의 죽음은 확실히 그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이다.²²⁾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테니슨은 헬럼과 보냈던 시절을 가장 “달콤한 4년”(four sweet years)[Sec. 22: 2]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헬럼은 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테니슨은 헬럼의 죽음으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어둠만 존재하는 그의 “아침”, 즉 어두운 미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우치고자 한다.

그러나 테니슨은 그의 인생의 중심이자 목표인 헬럼을 잃어버린 깊은 상실로 인해 과거와 현재,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지식을 구분하는 “사고력”(power to think)을 잃어버린 “정신이상자”(delirious man)가 되어 깊은 절망에 빠진다.

울퉁불퉁한 암초에 부딪쳐 침몰하기 전에,
마구 비틀거리는 불행한 배처럼?
나의 사고력을 잃게 하고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모든 지식을 잃게 하고

나를 그 환상의 옛것과 새것을 뭉뚱그리고
거짓과 참 속으로 빠져
계획도 없이 모든 것을 섞어버리는
그런 정신이상자가 되게 한 것인가?

22) Christopher Ricks, *Tennyson 2nd ed.* (London: MacMillan, 1989), p. 108.

That strikes by night a craggy shelf,
 And staggers blindly ere she sink?
 And stunn'd me from my power to think
 And all my knowledge of myself;

 And made me that delirious man
 Whose fancy fuses old and new,
 And flashes into false and true,
 And mingles all without a plan? (16: 13-20)

테니슨은 자신을 울퉁불퉁한 암초에 부딪쳐 곧 침몰할 것만 같은 배로 묘사하며, 그는 헬럼의 죽음이 그의 삶의 목적과 지식,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앗아갔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죽음이 “내가 볼 수도 쫓아갈 수도 없는 곳에/그대(헬럼)를 두었다,”(And bore thee where I could not see/Nor follow)[Sec. 22: 17-18] “(나를) 시력을 잃은 것처럼 만들었다,”(And like to him whose sight is lost)[Sec. 66: 8] “우리의 삶을 너무도 멀리 떼어놓아/우리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He put our lives so far apart/We cannot hear each other speak)[Sec. 82: 15-16]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테니슨과 헬럼의 거리감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헬럼과의 추억, 즉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동시에 이는 시인이 슬픔과 상실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테니슨은 헬럼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애인을 잃은 “연인”(lover) 또는 “과부”(widower)로 묘사함으로써 그와 헬럼의 우정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영혼 또는 정신적으로 맺어진 깊은 사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즉, 그는 헬럼만큼 특별한 존재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일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찾아온 행복한 연인
 그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
 그대가 없는 곳은 모두 어둡기만 하다.

 A happy lover who has come

To look on her that loves him well,

...

For all is dark where thou are not (8: 1-2, 12)

나의 Arthur, 나는 그대를 보지 못하리라

나의 과부로서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My Arthur, whom I shall not see

Till all my widow'd race be run; (9: 17-18)

과부의 눈물, 그가 볼 때

잠들면 나타나는 최근에 죽은 연인의 모습을

Tears of the widower, when he sees

A late-lost form that sleep reveals, (13: 1-2)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결혼의 비유는 테니슨과 헬럼의 정신적인 유대 관계를 보여준다.²³⁾ 그는 자신을 “연인”과 “과부”로 묘사함으로써 헬럼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헬럼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끝없는 상실과 고통을 강조한다. 결혼으로 맺어진 테니슨과 헬럼의 관계는 죽음조차 깰 수 없다. 따라서, 테니슨은 그의 생이 끝나기 전까지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꿈에서 등장하는 헬럼의 환영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의 어두운 미래를 묘사한다.²⁴⁾ 이러한 테니슨의 태도는 헬럼과의 거리감과 시인의 삶의 어두움을 강조하며, 그가 영혼불멸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헬럼은 테니슨이 그의 작품에 대한 여러 비평가의 혹평을 받고 “10년간의 침묵”(10 Years' Silence²⁵⁾)에 쌓일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그를 위로해주고 작품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이끌어준 “인도자”(guide) 역할을 한다.

23) Wendell S. Johnson, *Sex and Marriage in Victorian Poetry* (London: Cornell UP, 1975), p. 135.

24) Joanne P. Zuckermann, “Tennyson's *In Memoriam* As Love Poetry,” *Dalhousie Review*, Vol. 51, No. 2 (Summer 1971), p. 213.

25) Joyce Green, “Tennyson's Development during the ‘Ten Years’ Silence’(1832-1842),” *PMLA*, Vol. 66, No. 5 (Fall 1951), p. 665., “10년간의 침묵”은 1833년 테니슨이 『샬롯의 숙녀』(*The Lady of Shalott*)를 발표했다가 비평가들의 혹독한 비평을 받고 10년간 침묵을 지키게 된 기간을 뜻한다.

그때는 서로가 번갈아 가며 서로를 인도했고,
상상력으로 나온 빛이 창의성을 만들며
사색이 언어와 결합할 수 있기 전에
사색과 결합하기 위해 뛰어나왔다.

When each by turns was guide to each,
And Fancy light from fancy caught,
And thought leap out to wed with Thought
Ere Thought could wed itself with Speech; (23: 13-16)

테니슨은 헬럼과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문학 활동을 하며 예술적,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다. 테니슨은 헬럼의 “인도”를 통해 “사색”과 문학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러한 헬럼의 모습은 마치 신을 향해 인간의 영혼을 이끄는 “밤의 천사”(an angel of the night)[Sec. 69: 14]와도 유사하다. 즉, 헬럼을 천사처럼 칭송하고 자신을 그의 연인으로 묘사하는 테니슨의 태도를 통해, 그가 헬럼을 소중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고귀한 인류의 유형”(a type of the nobler humanity²⁶)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테니슨에게 헬럼의 부재란 인류의 진화 가능성, 즉 인간의 미래라는 희망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에 그는 영혼불멸과 종교에 대한 회의와 고뇌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인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상실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긴 고뇌의 여정을 『인 메모리엄』에 제시하고 있다.

테니슨은 친구의 부재로 인해 그의 삶이 슬픔과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지만, 시 창작을 통해 그의 상실을 덜고자 한다. 그는 “상실”(loss)을 애도하는 것이 “명성”(fame)을 얻거나 “찬양”(praise)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노래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쩔다는 것인가? 내 어두워진 길은
여전히 음악으로 울려 퍼질 것이며,
나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성보다 낫고,
사랑을 논하는 것은 찬양보다 달콤하다.

26) J. W. Hayes, *Tennyson and Scientific Theology* (New York: Haskell House Publishers, 1977), p. 41.

But what of that? My darken'd ways
Shall ring with music all the same:
To breathe my loss is more than fame,
To utter love more sweet than praise. (77: 13-16)

테니슨은 예술을 통해 친구를 잃은 그의 “상실”을 이야기하며, 그의 슬픔을 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헬럼과의 사랑을 떠올리며 그의 “어두운 길”을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친구의 죽음을 원인으로 느끼는 시인의 상실감은 『인메모리엄』의 중요한 배경 요소 중 하나이다.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상실에 빠진 테니슨에게 시 창작은 친구의 죽음에서 비롯된 슬픔과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를 창작하는 활동은 그를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수면제처럼, 그가 친구를 잃은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도움을 주는 “몽롱한 마취제”(dull narcotics)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요하는 마음과 머리에는
잘 짜여진 시구가 쓸모 있어서,
그 슬픈 기계적인 일은
마치 몽롱한 마취제처럼 고통을 마비시킨다.

But, for the unquiet heart and brain,
A use in measured language lies;
The sad mechanic exercise,
Like dull narcotics, numbing pain. (5: 5-8)

그는 시를 통해 신앙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찾으려 투쟁하기보다는,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고 현실을 마주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즉, 시인은 언어의 도움을 통해 그의 슬픔과 고통을 마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테니슨은 “나는 노래를 해야만 하기에 노래할 뿐/그래서 방울새들이 지저귀듯이 노래를 부른다”(I do but sing because I must/And pipe but as the linnets sing)[Sec. 21: 23-24]라고 말하며, 기계적으로나마 시구를 쓰지 않고서는 친구를 잃은 상실과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의 절망적인 심경을 드러낸다.

따라서 실의와 상실감이 너무 깊었던 테니슨은 “말”(words)조차도 자신의 슬픔을 위로 해주지 못할뿐더러 상실에서 벗어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고 말한다.

길듯처럼 말로써 나는 내 몸을 감쌀 것이다.
추위를 막아주는 성긴 옷처럼
그러나 이것이 둘러싼 커다란 슬픔이
윤곽으로 드러날 뿐, 그 이상은 아니다.

In words, like weeds, I'll wrap me o'er,
Like coarsest clothes against the cold:
But that large grief which these enfold
Is given in outline and no more. (5: 9-12)

그는 “성긴 옷”이 추위를 막기에 부족한 것처럼 언어도 그가 느끼고 있는 큰 슬픔을 위로 해주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과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의 현실 속에서 테니슨은 “외투로 감싼 슬픔의 움직임”(whose muffled motions)[Sec. 49: 15]으로 인해 더 깊은 슬픔에 빠진다. 따라서 예술은 그를 추위로부터 막아주거나 그의 슬픔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뿐이지 그의 상실감을 완전히 극복할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헨치먼(Anna Henchman)은 “비가(『인 메모리엄』)의 형태는 슬픔에서 위로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 시차라는 천문학적 기법처럼 대상의 위치가 대상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끌어낼 수 없다는 원칙에 맞추어 이루어진다²⁷⁾”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인은 상실과 수용, 그리고 위안이라는 일직선적인 단계를 거쳐 믿음을 되찾은 것이 아니다. 그는 슬픔과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이를 극복할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희망이 보이는 순간 다시 절망에 빠지는 복잡한 감정 변화를 제시한다.

또한, 당시 영국인들은 문학가들로부터 사회적, 종교적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위안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헬럼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격동의 시대에 시인으로서는 다루기엔 너무 개인적이고 부적절한 주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헬럼의 죽음을 애도하는 테니슨의 “피리소리”(piping)는 “쓸모없는 노래”(barren song)로 간주된다.

27) Anna Henchman, “The Globe We Groan In: Astronomical Distance and Stellar Decay in *In Memoriam*,” *Victorian Poetry*, Vol. 41, No. 1 (Spring 2003), p. 43.

한 나그네가 때때로 내 (피리)소리를 듣고,
때때로 엄격하게 말한다:
‘이 친구는 약한 마음을 약하게 하고,
단단한 인간의 마음을 녹이네.’

또 다른 나그네가 답한다: ‘그를 내버려 두게,
그는 그의 피리를 불며
영구적인 칭송을 얻으려고
괴로움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네.’

세 번째 여행객이 격노한다: ‘지금 이
사적인 슬픔의 쓸모없는 노래를 부를 때 인가?
더 많은 사람들이
민권의 왕좌에 모여들 때?’

The traveler hears me now and then,
And sometimes harshly will he speak:
‘This fellow would make weakness weak,
And melt the waxen hearts of men.’

Another answers, ‘Let him be,
He loves to make parade of pain
That with his piping he may gain
The praise that comes to constancy.’

A third is wroth: ‘Is this an hour
For private sorrow’s barren song,
When more and more the people throng
The chairs and thrones of civil power? (21: 5-16)

테니슨은 시라는 매체를 통해 헬럼의 죽음과 그로 인한 시인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짐한다. 그러나 윌슨(William Wilson)은 “빅토리아인들은 시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비가(『인 메모리움』)의 희망을 현실로 여겼다. 그들은 테니슨의 자기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²⁸⁾”라고 비평한다. 윌슨의 주장은 시인 개인의 상실감과 종교적 회의감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인 신념을 회복시키거나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테니슨은 죽음을 “모든 신앙의 열쇠를 지닌 그림자”(Who keeps the keys of all the creeds)[Sec. 23: 5]라고 묘사함으로써 인류가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해답은 무덤 너머에 있다고 믿었고, 죽음이 모든 믿음의 진리를 드러낼 것으로 생각한다.²⁹⁾ 이것은 그가 인간이 죽음과 같은 개인적인 슬픔과 상실을 경험하고 “정직한 의심”(honest doubt)[Sec. 96: 11]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절대적 진리라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문인으로서 사적인 감정을 담아낸 테니슨의 시 창작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는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기한다.³⁰⁾

이보시오, 그대들은 속 모르는 소리를 한다.
 그대들은 그 신성한 유해를 알지 못했다.

...

새가 즐거우면; 그 노래도 즐겁다,
 지금 그녀의 새끼들이 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가 슬프면; 그 노래도 변한다,
 그녀의 새끼가 도둑맞았기 때문에.

Behold, ye speak an idle thing:
 Ye never knew the sacred dust:

...

And one is glad; her not is gay,
 For now her little ones have ranged;
 And one is sad; her note is changed,
 Because her brood is stol'n away. (21: 21-22, 25-28)

28) William A. Wilson, “A Victorian Philology and the Anxiety of Language in Tennyson’s *In Memoriam*,”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Vol. 30, No. 1 (Spring 1988), p. 42.

29) Erik Gray, *In Memoriam: Alfred Lord Tennyson 2nd Ed.* (New York: W.W. Norton & Co., 2004), p. 21.

30) 이세순, 『인 메모리엄』 (한빛문화, 2008), p. 141.

테니슨과 헬럼의 관계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와도 같았기에, 그는 친구를 잃은 슬픔이 새끼를 빼앗긴 어미 새의 심정과 맞먹을 정도로 비통하다고 묘사한다. 테니슨은 인간의 감정 표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시 창작을 통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의 절망과 슬픔을 표현한다.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시대에 테니슨은 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을 “방울새”로 비유하며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헬럼을 잃은 슬픔을 “노래”(note), 즉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실과 고난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는 과정과 방향을 『인 메 모리엄』이라는 “노래”를 통해 제시한다.

그러나 테니슨은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절망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헬럼과의 추억에 사로잡힌다. 그에게 짧았던 헬럼과의 추억은 아름답고, 행복했고, 생명으로 가득 찬 저장고와도 같다.

달콤한 사년에 걸쳐 솟았다가 쓰러졌다,

...

그리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흥겹게 했다.

Thro' four sweet years arose and fell,

...

And we with singing cheer'd the way, (22 : 2, 5)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모든 것은 아름답고 좋았다,

그리고 시간이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모두 좋았다,

그리고 모든 봄의 신비는

생명의 방들에서 움직였다.

And all we met was fair and good,

And all was good that Time could bring,

And all the secret of the Spring

Moved in the chambers of the blood; (23: 17-20)

테니슨은 짧았지만, 생기넘치고 행복했던 4년간의 우정을 회상하며 잠시 슬픔에서 벗어난다. 그와 함께 보내던 과거의 생명 넘치는 “시간”은 현재의 “어두운 집”이나 “사랑이 없는

거리”와는 반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헬럼과 테니슨의 단절감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즉, 테니슨이 “너의 어둠은 끝에서 환하게 빛나다/다시 어둠으로 잠겨버린다”(Thy gloom is kindled at the tips/And passes into gloom again)[Sec. 39: 11-12]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는 상실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다가도 “달콤한 4년”의 회상으로 인해 다시 상실이라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된다. 또한, 현실을 부정하는 테니슨의 태도는 그에게 위안을 주기보다는 헬럼의 부재를 더욱더 강조하며, 그를 더 깊은 슬픔과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따라서 헬럼이 없는 현실은 그가 존재하던 과거의 추억과 대조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테니슨의 상실감을 더 크게 만든다.

결국 테니슨은 현실 속 친구의 죽음이 과거의 추억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슬픔의 안개”(haze of grief)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슬픔의 안개인가
 과거의 즐거움을 더 커보이게 만드는 것은?
 현재 상황의 미약함인가
 과거를 이 위안 속에 놓는 것은?

And is it that the haze of grief
 Makes former gladness loom so great?
 The lowness of the present state,
 That sets the past in this relief? (24: 9-12)

테니슨은 “슬픔의 안개”로 인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친구를 잃은 슬픔을 과거의 추억을 통해 위로받고자 한다. 비슬리(Violet E. Beasley)는 이러한 테니슨의 모습을 “마비된 기억”(the paralyzed memory)이라고 규정한다.

마비된 기억을 사용하여, 테니슨은 자신의 슬픔 때문에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이전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연산 작용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암시한다. 이러한 마비된 기억은 현재와 과거의 생명력 있는 유대감을 상실시킨다.³¹⁾

31) Violet E. Beasley, *Alfred Lord Tennyson: Memory in Tennyson's Poetry* (London: Ann Arbor UMI, 1983), p. 65.

깊은 슬픔과 상실에 빠진 시인은 마비된 기억을 사용하여 과거의 즐거움을 회상하고 이로 부터 위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슬픔의 안개”를 통해 본 과거는 오히려 현재의 슬픔과 상실을 강조한다. 이것은 과거가 시인을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헬럼과의 단절감을 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테니슨은 상실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뇌에 빠진다.

테니슨과 헬럼은 인류의 진화라는 신념을 공유하지만, 갑작스러운 헬럼의 죽음으로 인해 테니슨은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과 동시에 삶의 가치와 목적이 흔들리는 큰 상실감을 느낀다. 시인의 슬픈 현실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과 대조를 이루며 친구의 부재와 상실을 강조한다. 또한, 당시 과학의 발전은 영혼불멸을 부정하며 테니슨을 깊은 절망에 빠트린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정서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 창작을 통해 그의 슬픔과 상실을 털어내고자 한다. 그는 예술을 통해 그의 상실과 고뇌와 같은 내면의 정서를 표현한다. 어둠, 추위, 공허함 등과 같은 여러 부정적인 시적 묘사를 통해 그는 자신의 정서적 변화를 투영하며, 독자들이 그의 상실과 고뇌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슬픔으로 인해 테니슨은 헬럼과 재회를 희망하는 믿음, 즉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2. 회의의 양상

『인 메모리엄』이 쓰였던 19세기는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대이다. 태초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상을 반박하는 진화론의 등장으로 테니슨을 포함한 다수 빅토리아인들 사이에 기존 가치관을 향한 도전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테니슨은 다양한 과학적 이론, 특히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Principle of Geology*)와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에 거부감 없이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그는 당대 과학자들과도 친분을 유지하며 폭넓은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그의 작품을 통해 제시한다. 그는 1869년 창립된 형이상학 학회(the Metaphysical Society)의 회원으로서 헉슬리(T. H. Huxley), 틴들(J. Tyndall), 클리포드(W. K. Clifford), 몰리(J. Morley)와의 만남을 통해 지리학, 천문학, 자연과학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사도회(the Apostles) 모임에서는 라이엘(C. Lyell), 세지위크(H. Sedgwick), 휴웰(W. Whewell)과 지질학, 생물학 등의 과학 분야에 대한 이론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한다.³²⁾

테니슨은 헬럼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공유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과학을 통해 그의 상실을 극복할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당시 우세한 과학적 “지식”(knowledge)으로 인해 그의 상실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그는 영혼불멸과 신의 사랑에 대한 그의 가치관에 회의를 갖게 된다. 그는 자연과 우주가 인간을 향해 사랑이 아닌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헬럼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방치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식의 한계는 테니슨의 영혼 불멸성과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더하며 그의 종교관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누가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가?

누가 지식의 미를 비난할 것인가?

지식은 인간과 어울려 번성할 것인가!

누가 지식의 기둥을 고정할 것인가? 그 지식이 우세하게 두어라.

Who loves not Knowledge? Wo shall rail

Against her beauty? May she mix

32) Cosslett, p. 41.

With men and prosper! Who shall fix
Her pillars? Let her work prevail. (114: 1-4)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테니슨은 지식을 통해서 인간과 영혼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과학적 지식은 그의 신념을 확인시키기보다는 부정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테니슨은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과 희망에 회의를 느낀다. 19세기까지 존재한 인간의 영혼은 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가치관의 붕괴는 테니슨을 포함한 모든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 인류의 존재 의미와 영혼불멸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그는 당대의 종교가 신을 향한 믿음과 같은 추상적인 신념을 제외하고는 실존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종교를 향한 그의 회의감은 더 깊어지게 된다.

테니슨은 지식을 통해 신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상실과 고뇌에 빠지게 된다. 그는 정체성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울고 있는 어린아이”(an infant crying)에 비유하며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의 회의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나의 꿈은 달려간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밤중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
빛을 찾아 울고 있는 어린아이
울음밖엔 아무 말도 모르는 어린아이

So runs my dream: but what am I?
An infant crying in the night:
An infant crying for the light:
And with no language but a cry. (54: 17-20)

테니슨은 영혼불멸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아이처럼 길을 잃고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즉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린 테니슨은 말을 하지 못해 울기만 하는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존재와 신을 향한 그의 믿음을 찾지 못한다. 동시에 그는 영혼불멸이라는 “꿈”과 “빛”, 즉 인생의 목적을 잃고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방황하게 된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의 “울음”이라는 언어적 기능은 영혼불멸을 찾고자 하는 그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제한을 두는 불완전한 매개체이다.³³⁾ 이것은 테니슨이 “울

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상실에 빠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그는 갈등과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다른 길에 갇힌 그의 불안정한 심경을 표현한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 육체의 부재를 경험한 테니슨은 인간의 영혼과 사후세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동시에 당대의 과학적 사고는 신의 사랑이나 믿음을 거부한 채 그를 더욱더 깊은 회의에 빠지게 한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죽은 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영겁의 세월에 걸쳐 화석이 될 뿐,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이에 테니슨은 인간이 영혼의 불멸성 없는 한낱 유한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단지 “먼지와 재”(dust and ashes)로 덮인 빛이 없는 그저 한없이 어두운 세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가냘픈 목숨이 이것을 가르쳐준다,
삶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중심부까지 어둠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것이라곤 먼지와 재뿐이다.

My own dim life should teach me this,
That life shall live for evermore,
Else earth is darkness at the core,
And dust and ashes all that is (34: 1-4)

헬럼과의 재회를 믿고 있었던 테니슨은 영혼불멸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마치 “먼지”나 “재”처럼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제34편에서 테니슨은 중심부터 어둠인 지구를 영혼불멸이 존재하지 않는 침묵의 세계와 동일시한다.³⁴⁾ 이것은 영혼불멸이라는 믿음이 인간의 삶에 희망과 목적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인간을 향해 침묵의 태도를 일관하는 “어둠”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테니슨은 삶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이 죽음과 무(無)일 뿐이라면, 인류에게 남은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영혼불멸이

33) David C. Leonard, “Tennyson, Chambers, and Recapitulation,” *The Victorian Newsletter*, Vol. 56 (Fall 1979), p. 9.

34) Dennis R. Dean, *Tennyson and Geology* (Lincoln: The Tennyson Society, 1985), p. 8.

라는 희망의 빛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테니슨은 마지막까지 그 빛을 놓지 않고 해답을 찾기 위한 고뇌의 과정을 경험한다.

테니슨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슬픔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는다. 라이엘의 지질학에 영향을 받은 테니슨은 자연이라는 대상을 통해 영혼불멸에 대한 신념을 회복하고 상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지식, 구체적으로 지질학의 발달로 인해 큰 충격을 받는다. 라이엘은 그의 『지질학의 원리』에서 창조론에 대한 믿음과 신의 사랑을 완벽하게 부인한다. 그는 살아있는 종들이 결국 멸망했듯이, 인간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멸종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테니슨이 가지고 있던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라이엘(Lyell)은 생물 종들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그들 스스로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설상가상으로, '신은 진실로 사랑이며, 창조물의 궁극적 법칙을 사랑한다'는 믿음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보였다.³⁵⁾

라이엘의 주장은 신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은 멸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것은 인간 또한 언젠가 멸종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니슨은 자연이 사랑의 법칙을 부정하고 인간은 미래의 화석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영혼불멸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회의감에 빠진다. 그는 인간이 죽음 후 “먼지와 재” 그리고 화석만 남기고 사라지는 존재라면,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고 살기 위한 투쟁을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테니슨은 영혼불멸의 희망이 없는 인간의 삶은 가치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진화하고 발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과학의 근거들은 테니슨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더하는 원인이다. 그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이 창조한 자연 또한 인간을 사랑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자연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인간을 적대시하고 파괴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God)과 인간을 향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자연”(Nature)의 대조를 통해 시인은 그가 느끼고 있는 혼란을 강조한다.

35) Basil, p. 85.

그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고,
창조물의 궁극적 법칙을 사랑한다.
비록 포식으로 이빨과 발톱이 빨간 자연은
인간의 신조에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Who trusted God was love indeed
And love Creation's final law-
Tho' Nature, red in tooth and claw
With ravine, shriek'd against his creed- (56: 13-16)

자연의 “붉게 물든 이빨과 발톱”은 신의 사랑과 모순되는 폭력성과 무자비한 태도를 보이며 테니슨의 믿음을 흔든다. 테니슨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의 삶과 어떠한 유사성이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중심적인 자연을 불화를 일으키는 존재라고 여긴다.³⁶⁾ 따라서 그에게 신은 인간을 사랑으로 돌보지만, 자연은 인간의 삶에는 무관심하다. 또한, 그에게 신은 인간 영혼의 영생을 약속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유한성, 즉 죽음만을 남기며 “인간의 신조”를 파괴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는 잔인한 자연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인간의 모습이 마치 헬럼을 잃고 공허함만 남은 그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신을 향한 그의 믿음에 비명을 지르고 신의 사랑을 부정하며 불화를 일으키는 자연의 태도로 인해 인간의 영혼불멸을 향한 테니슨의 회의감은 더 깊어지게 된다.

인간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자연을 바라보며 테니슨은 자연이 신의 일부가 아닌 적대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신과 자연은 다투고 있는 것인가?
자연이 그러한 악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인가?
자연은 생물에겐 그렇게 세심한 것 같아도,
하나의 생명에는 그렇게도 무심하다.

Are God and Nature then at strife,
That Nature lends such evil dreams?

36) Isobel Armstrong, “The Collapse of Object and Subject: *In Memoriam*,” ed. Herbert F. Tucker, *Critical Essays on: Alfred L. Tennyson* (New York: G. K. Hall and Co., 1993), p. 137.

So careful of the type she seems,
So careless of the single life: (55: 5-8)

테니슨은 생물에게는 세심하지만 하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자연이 인간에게 파괴와 죽음만을 남긴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는 자연이 헬럼이라는 한 개인의 생명을 무시하고 죽음을 방관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무심하고 잔인한 자연의 모습은 신의 사랑의 법칙과 대조를 이루며, 신을 향한 시인의 믿음을 뒤흔드는 원인이 된다.³⁷⁾ 그는 영혼의 존재와 신의 사랑을 부정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기에 이른다.

테니슨에게 자연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의 죽음을 방관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의 무심한 태도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상의 생물들이 죽음을 끝으로 먼지가 되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생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깎아지른 절벽과 파낸 바위에서
자연은 외친다, ‘천 가지 생물들이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So careful of the type?’ but no.
From scarped cliff and quarried stone
She cries, ‘A thousand types are gone:
I care for nothing, all shall go. (56: 1-4)

자연은 테니슨에게 위안을 주기보다는 그를 향한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의 상실과 회의를 극복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자연이란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의 절망과 회의는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시인은 인간이 죽음 이후 맞이하는 것이 사후세계가 아닌 소멸이라면 인간의 삶엔 어떠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는 무관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창조물의 궁극적 법칙이 신의 사랑이 아닌 멸종이며, 인간은 영혼 없는 하찮고 무의미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냉담한 자연에 대한 그의 두려움을 암시한다.

37) Tennyson, C., p. 84.

테니슨은 우주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만물의 창조자인 신을 찬양한다고 믿는 기독교적 입장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우주의 모습을 『인 메모리엄』을 통해 보여준다. 그는 자연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별들조차 헬럼이 없는 그의 삶처럼 무질서하고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연과 우주의 무관심한 태도는 시인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공허함을 자아낸다.

그녀 [슬픔]는 속삭인다. “별들은 맹목적으로 흐른다.

하늘을 가로질러 하나의 막이 짜여있다.

저기 황량한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죽어가는 해에서 속삭임이 들려온다.

자연은 온통 환영일 뿐

모든 음악도 그런 음조인,

나 자신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

텅 빈 손의 공허한 형상일 뿐

“The stars,” she [Sorrow] whispers, “blindly run;

A web is woven across the sky;

From out waste places comes a cry,

And mummings from the dying sun;

And all the phantom, Nature, stands-

With all the music in her tone,

A hollow echo of my own-

A hollow form with empty hands.” (3: 5-12)

테니슨에게 우주와 자연은 혼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뚜렷한 목적 없이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자신의 현실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별에 비유한다. 또한, 자연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막’을 통해 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신을 숨기며 그와 신의 소통을 막는다.³⁸⁾ 즉, 테니슨은 “하나의 막”을 통해 인간과 신의 단절감뿐만 아

38) Robert Langbaum, “The Dynamic Unity of In Memoriam,” ed. Harold Bloom, *Modern Critical Views: Alfred, Lord Tennyson*, (1985), p. 60.

니라 인간을 향한 자연의 무관심한 태도를 표현한다. 또한, 그는 “황량한 곳”과 “죽어가는 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의 파괴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동시에 그는 믿음을 잃은 그의 외침도, 인간이 사는 세상도 공허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은 단지 “환영”이자 “공허한 손”일 뿐이기에, 자연을 통해 해답을 얻고자 하는 시인의 외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진다.

테니슨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며 헬럼이 없는 바뀐 세상에 적응하려는 그의 노력과 투쟁이 자연과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랑하며, 수많은 재난을 겪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던 인간은
메마른 흙이 되어 흩날려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철 언덕 속에 화석이 되어 묻혀버릴 것인가?

Who loved, who suffer'd countless ills,
Who battled for the True, the Just,
Be blown about the desert dust,
Or seal'd within the iron hills? (56: 17-20)

테니슨은 거대한 자연에 저항하지 못하고, “메마른 흙”이나 “화석”이 되는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에 큰 절망감을 느낀다. 그는 한때 과학자들이 신을 향한 문이라고 생각했던 자연은 인간에게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이는 인간에게 의심과 믿음 사이의 피할 수 없는 혼란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³⁹⁾ 따라서 빅토리아인들은 자연을 더 이상 신의 계시로 볼 수 없었고, 이러한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해 테니슨은 그의 신념으로 신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⁴⁰⁾ 그러나 새로운 과학지식의 등장으로 영혼불멸에 대한 문제는 더 복잡해졌으며, 테니슨은 더 깊은 의심에 사로잡힌다.

테니슨은 지식을 통해 회의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그의 믿음을 되찾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는 지식이 사랑과 믿음의 것이 아니기에 죽음이라는 공포에 맞서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지식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39) Robert B. Hass, “The Mutable Locus Amoenus and Consolation in Tennyson’s *In Memoriam*,”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Vol. 38, No. 4 (Fall 1998), p. 675.

40) Elisabeth Jay, *Faith and Doubt in Victorian England* (London: MacMillan, 1986), p. 72.

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이러한 지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직은 반밖에 자라지 못한 허영심 강한 어린아이-
지식은 죽음의 공포와 싸울 수 없다.
지식은 무엇인가, 사랑과 믿음에서 잘려 나왔으며,
그러나 악마의 머리에서 나온

거친 팰리스인가? 힘을 얻으려는
지식의 진진적인 투쟁의 모든 장애물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열기. 지식이 그의 위치를 알게 하라,
지식은 두 번째이지, 첫 번째가 아니다.

Half-grown as yet, a child, and vain-
She cannot fight the fear of death.
What is she, cut from love and faith,
But some wild Pallas from the brain

Of Demons? Fiery-hot to burst
All barriers in her onward race
For power. Let her know her place;
She is the second, not the first. (114: 9-16)

마침내 테니슨은 지식, 논리, 그리고 이성으로는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과학의 한계성을 깨닫는다. 그는 지식이 사랑과 믿음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접근 방식으로 회의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사랑과 믿음에서 잘려 나온 지식은 종교적 믿음을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대적할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버클리(Buckley)는 “테니슨은 믿음의 소리인 직관을 통해 신을 향한 자연의 부정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믿음을 전제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마음의 이성을 믿었다”⁴¹⁾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테니슨이 인간은 지식이 아닌 “지혜”(Wisdom)[Sec. 114: 21]와 직관의 눈을 통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마음의 이성’, 즉 영혼

41) Buckley, *The Growth of a Poet*, p. 125.

과 신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과학으로 바라본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테니슨은 영혼불멸이 없는 인간의 삶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생”(Love had not been)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절망감은 한층 더 심화된다.

아, 그 무익한 상황을 만들어 어떤 이득을
 착취하려 하는가? 만약 죽음이 처음부터 죽음으로
 보인다면, 사랑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장 막다른 길에 있었을 것이다.

Oh, me, what profits it to put
 An idle case? If Death were seen
 At first as Death, Love had not been,
Or been in narrowest working shut, (35: 16-20)

테니슨은 신과 인간을 향한 자연과 우주, 그리고 지식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인간에게는 애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헤이즈(J. W. Hayes)는 “어둠에서 빛에 이르는 테니슨의 영혼의 투쟁은 시에 잘 나타나 있지만, 결국 테니슨은 ‘신’(God), ‘영혼’(the Soul), 그리고 ‘불멸’(Immortality)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다⁴²⁾”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테니슨이 영혼불멸이 없는 인간에게는 사랑과 살아가려는 삶의 의지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회의에 빠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는 신의 부재를 대신하고자 자연과 과학을 통해 인간의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해답과 믿음을 되찾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자연과 과학은 인간의 시작과 끝은 처음부터 죽음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며 영혼불멸을 부정한다. 즉, 과학과 죽음은 테니슨이 4년 동안 헬럼과 공유했던 우정과 사랑의 가치를 부정하며 그를 “막다른 길”로 밀어 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테니슨은 영혼불멸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42) Hayes, p. 18.

차라리 평화롭게 익사해버리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유혹하는 뱀이 끌어당기는 새들의 운명처럼
텅 빈 어둠의 턱 속으로 곤두박질치며
떨어져 생명을 멈추어 버리는 것이.

'T were best at once to sink to peace,
Like birds the charming serpent draws
To drop head-foremost in the jaws
Of vacant darkness and to cease (34: 12-16)

죽음만 존재하는 인간의 삶에 큰 회의를 느낀 테니슨은 상실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삶의 목표와 믿음을 회복하려는 투쟁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텅 빈 어둠의 턱”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영혼불멸이 존재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에, 그는 사랑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죽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인간과 신을 향한 회의와 의심을 드러낸다.

테니슨은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헬럼의 죽음이라는 슬픔에서 벗어나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 자연과 과학을 탐구한다. 그러나 그는 자연과 과학의 잔인하고 무관심한 태도에 절망감에 빠지게 되며, 결국 그는 인간과 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과학은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자연은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기보다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냉담하게 외친다. 또한, 그는 목적없이 흐르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연과 우주가 사후 그와 헬럼과의 재회뿐만 아니라 신의 사랑과도 단절시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회의와 의심의 과정을 통해 테니슨은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헬럼과의 재회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삶이 가치가 없는 끝없는 어둠일 것으로 생각한다. 즉, 헬럼의 부재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던 시인은 신의 자애로운 사랑과는 대조되는 차가운 과학과 자연의 모습으로 인해 인간의 가치와 영혼불멸에 대한 의문들 던지며 깊은 고뇌와 회의에 빠진다. 그러나 테니슨은 친구와의 사랑, 영혼불멸, 그리고 인류를 향한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의와 의심을 극복할 해답을 찾고자 한다.

III. 영혼불멸의 회의 극복

『인 메모리엄』은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며, 죽음으로 시작해서 새 삶의 약속으로 끝나는, 즉, 종결이 “즐거운 일종의 신곡”(A Divina Comedia⁴³)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를 통해 그의 두려움과 의심, 고통을 반영하고, 믿음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며, 시간의 흐름보다는 그의 감정 변화와 신앙을 향한 회의, 그리고 상실의 극복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노이스(Alfred Noyes)에 의하면 테니슨은 모든 종교적 신념이 부당하게 격양되지 않은 과학의 공격으로 무너지던 시기에 근본적인 신념을 위해 바위처럼 서 있었던 시인이다.⁴⁴ 즉, 테니슨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 이상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신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시인이다. 그는 혼란과 회의로 가득 찬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헬럼의 죽음으로 회의감에 휩싸이지만, 그의 신념을 회복하기 위해 고뇌와 회의를 마주하고, 마침내 한층 더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깨우침을 『인 메모리엄』을 통해 보여준다. 따라서, 테니슨은 인간은 절망에 빠지고, 믿음에 회의감이 생겨 의심하며, 슬픔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시에 반영한다.

테니슨은 갑작스러운 헬럼의 죽음과 그 당시 떠오르는 지질학적, 진화론적 증거를 통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영혼불멸에 대한 모순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는 맹목적으로 믿음을 추구하기보다는,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통해 영혼불멸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고 신을 향한 믿음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리를 얻게 된다. 그는 헬럼의 죽음 후 맞이하는 세 번의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러한 상실과 회의의 극복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세 번의 크리스마스는 그의 상실과 회의의 극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 종교적 회복 과정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는 슬프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는 차분하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는 낯설게 보여준다.⁴⁵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연휴이

43) *A Memoir*, p. 304.

44) Alfred Noyes, *Some Aspects of Modern Poetry* (New York: Frederick A. Stokes Co., 1924), p. 138.

45) John D. Jump, *An Introduction to Alfred Tennyson: In Memoriam, Maud, and Other Poems* (London: J.M. Dent, 1974), p. 105.

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테니슨에게는 그리움과 슬픔만이 존재하는 하루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테니슨은 헬럼이 없는 현실을 차분하게 받아들인다. 마침내 테니슨은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헬럼 없이도 삶은 흘러간다는 낯선 사실을 깨달으며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상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즉, 테니슨이 상실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재회시키고, 궁극적으로 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바르게 만든다는 기독교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⁴⁶⁾ 그는 영혼불멸과 인류의 진화라는 가능성을 통해 헬럼과 재회할 미래를 고대하고, 상실은 사라지지만 희망은 커지며, 슬픔과 의심은 사랑과 믿음으로 대체된다.

테니슨은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후세계라고 믿는다.⁴⁷⁾ 그러나 헬럼의 부재와 그를 그리워하는 애도의 시간이 길어지자, 테니슨은 자연의 세계에서 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그는 지상의 어떠한 생명체들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총명하고 앞날이 창창한 자신의 친구를 데려간 자연과 종교를 의심한다.

‘그 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러나 아니다.

깎인 절벽과 파낸 바위에서

자연은 외친다, ‘천 가지 종들이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다. 모든 종이 사라지리라.

‘그대는 나에게 호소를 한다.

나는 생명을 가져오고, 죽음도 가져온다.

영혼이란 단지 숨결만을 뜻할 뿐

나는 그 이상은 모른다.’

...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은 괴물, 환상,

불화...

‘So careful of the type?’ but no.

From scarpd cliff and quarried stone

She cries, ‘A thousand types are gone:

I care for nothing, all shall go.

46) *A Commentary on Tennyson's In Memoriam*, p. 34.

47) *A Memoir*, p. 321.

‘Thou makest thine appeal to me:
 I bring to life, I bring to death:
 The spirit does but mean the breath:
 I know no more.’
 ...
 No more? A monster then, a dream,
 A discord... (56: 1-4, 21-22)

테니슨은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자연 앞에서 인간이 무질서 그 이상이 되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자연이 바라보는 인간의 존재는 “괴물”이자, “환상”, “불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은 소중하게 여기냐는 시인의 질문에 자연은 “나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다. 모든 종이 사라지리라”라고 무심하게 외친다. 희망과 진실이 영원히 “장막 뒤에”(Behind the veil)[Sec. 56: 28] 숨겨진 것처럼, 자연은 그에게 어떠한 해답도 제공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관심한 태도로 인간의 죽음을 방관한다. 그러나 인간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존재라면 영혼의 존재와 삶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인간을 향한 희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지막에 오직 우리 자신의 관 속에서 끝난다면, 인생의 모든 고생을 겪을 가치가 있을까? 만약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느님이 다른 삶에 대한 이 강한 본능과 보편적인 열망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가망성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⁴⁸⁾

테니슨의 주장은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죽음을 넘어선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비록 자연은 무관심한 태도로 인간의 죽음을 방관하지만, 헬럼과 영혼의 재회라는 희망이 없다면 테니슨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시인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고뇌한다.

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아무튼 선이 악의 궁극적 목적지가 될 것임을

48) Ibid, p. 321.

성질의 고통, 의지에서 비롯되는 죄
의심이 지닌 결함, 핏속의 더러움의 목적지가

그 어느 것도 목적 없이 걷지 않으며
단 하나의 목숨도 파괴당하거나
쓰레기처럼 공허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실 때는

Oh yet we trust that somehow good
Will be the final goal of ill,
To pangs of nature, sins of will
Defects of doubt, and taints of blood;

That nothing walks with aimless feet;
That not one life shall be destroy'd,
Or cast as rubbish to the void,
When God hath made the pile complete; (54: 1-8)

테니슨은 인간 영혼의 최종 목적지가 어둠이 아닌 “빛”, 즉 신의 곁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신을 향한 그의 믿음은 “영생에 대한 믿음”(belief in eternal life⁴⁹)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믿음은 테니슨에게 신은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과 영혼불멸에 대한 희망을 제공한다. 슬픔과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은 테니슨이 헬럼과 신을 향한 그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는 『인 메모리엄』을 통해 삶과 죽음, 의심과 믿음,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정의하는 관계이자 삶의 일부라는 진리를 표현한다.

테니슨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상실감을 넘어선 19세기의 종교와 과학의 충돌과 가치관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영혼 불멸에 대한 확신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녀 [지식]의 이마엔 한 줄기 불이 앉아 있어
그녀는 대담한 표정을 짓고서

49) Jump, *Writers and Their Background*. p. 107.

미래의 가능성 속으로 뛰어든다,
모든 것을 소망에 걸고서
...
더 고귀한 손이 그녀를 온화하게 해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면, 지혜와 더불어
어린아이처럼 나란히 움직여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리라.

But on her [knowledge] forehead sits a fire:
She sets her forward countenance
And leaps into the future chance,
Submitting all things to desire.
...
A higher hand must make her mild,
If all be not in vain, and guide
Her footsteps, moving side by side
With Wisdom, like the younger child: (114: 5-8, 17-20)

테니슨은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친구와의 우정이 죽음을 넘어서까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는 신의 존재와 과학이라는 두 분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신의 은총을 상징하는 “더 고귀한 손”(a higher hand)이 과학의 불완전한 지식을 넘어 인간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고 인식한다. 지식만으로 본 세상은 믿음이 없는 “텅 빈 손”(empty hands)[Sec. 3: 12]이라는 공허한 형상뿐이지만, 지식과 지혜로 본 세상은 신과 믿음이 존재한다. 그는 지식이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미래의 가능성”으로 이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자연과 과학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지식과 지혜의 조화를 통해 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깨닫는다.⁵⁰⁾ 이것은 테니슨이 종교와 과학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믿음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니슨은 지식이 아닌 영혼의 눈인 “지혜”(Wisdom)의 관점으로 신을 바라볼 때 그가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제114편을 통해 그는 “지식은 세속적인 인간의 마음이지만/지혜는 거룩한 영혼의 것이기에”(For she is earthly of the mind/But

50) *A Memoir*, p. 312.

Wisdom heavenly of the soul)[Sec. 114: 21-22]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 테니슨은 지식이 인간의 것이기에 세속적이고 지식이나 이성의 눈으로는 지혜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엇에 의하면 테니슨은 그의 믿음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그의 신념을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애를 썼고, 결국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빛을 낼 수 있었던 시인이다.⁵¹⁾ 이것은 테니슨이 영혼불멸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지식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추상적이기에 이해하기 힘든 믿음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식은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인 사실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에게 영혼불멸과 신의 사랑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즉, 테니슨은 영혼의 것인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우치고, 앞으로 그에게 인간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떠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침내 그는 절망과 두려움, 의심과 회의를 통해 인간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한다.

테니슨은 과학이 그의 믿음을 저버리게 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것은 상실의 극복을 통해 되찾은 테니슨의 믿음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인지를 입증하게 하라.
그리고 과학은 인간에게 적어도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증명하게 하라,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Let Science prove we are, and then
What matter Science unto men,
At least to me? I would not stay. (120: 6-8)

그러나 테니슨은 과학적 지식을 무시하거나 신과 자연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 둘이 우주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온 우주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⁵²⁾. 이것은 테니슨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과학적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한 희망과 신을 향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는 신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과학적 지식

51) Eliot, p. 16.

52) Hayes, p. 12.

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과학과 종교 모두 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지식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거둔다. 마침내 그는 이 두 가지 지식의 충돌과 의심의 과정을 거쳐 수용하게 된다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테니슨은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존재를 정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서 헬럼과의 재회라는 희망을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을 통해 그는 회의라는 “어둠”(darkness) 속에서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A beam)을 보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뿐, 우리는 알 수는 없다.

지식이란 우리가 보는 것뿐이다.

그러나 지식은 당신(God)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자라게 하소서.

지식이 더욱 더 자라게 하소서.

그러나 더 많은 경외심이 우리에게 깃들게 하소서.

마음과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이전과 같은 음악을 연주하게 하소서.

We have but faith; we cannot know;

For knowledge is of things we see;

And yet we trust it comes from thee,

A beam in darkness: let it grow.

Let knowledge grow from more to more,

But more of reverence in us dwell;

That mind and soul, according well,

May make one music as before, (Prologue: 21-28)

테니슨은 마음과 영혼의 조화를 통해 이전과 같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그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지식”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혼”의 융합을 통해 믿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음악”은 자연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19세기 물질주의에 따라 파괴된 종교적 회의를 겪고 있는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⁵³⁾ 따라서, 테니슨은 시를 통해 과학과

종교 중 하나를 부정하거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둘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그의 모습을 시에 반영함으로써 종교적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던 빅토리아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테니슨은 친구를 잃은 깊은 상실감과 영혼불멸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믿음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과학적 이론을 포용하고 종교에 대한 진심어린 의심과 사색을 통해 스스로 인간의 존재와 영혼 불멸에 대한 진리를 찾고자 노력한다. 즉, 그는 과학을 배제하거나 맹목적으로 믿음을 좇는 것이 아닌, 모든 지식을 수용하고 상실의 위기를 기회로 영혼 불멸에 대해 진중하게 고찰한다. 그는 갑작스러운 서리가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것처럼, 헬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들의 우정과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이끌어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죽음이 달콤한 대답을 한다

‘내 갑작스러운 서리는 갑작스러운 이득이 되었고,
곡식을 무르익게 하였으니,
그것은 후열(後熱)에서 나왔을 것이다.’

But Death returns an answer sweet:

‘My sudden frost was sudden gain,
And gave all ripeness to the grain,
It might have drawn from after-heat’ (81: 9-12)

테니슨에게 친구의 상실은 마주하기엔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는 고뇌와 회의의 과정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을 되찾으려 노력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믿음을 통해 죽은 친구의 영혼과 자신의 영혼을 이어주고 둘의 우정을 영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인은 신을 향한 믿음을 통해 영혼불멸과 헬럼과의 재회라는 희망을 인식한다. 이러한 희망을 찾기 위해 테니슨에게 영혼불멸이라는 믿음은 필수적이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⁵⁴⁾ 이것은 그가 영혼불멸의 믿음을 통해 헬럼과의 추억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상실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53) Hass, p. 686.

54) Herold Nicolson, *Tennyson: Aspects of His Life, Character and Poetry* (London: Constable and Co. Ltd., 1949), p. 268.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니슨은 영혼불멸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헬럼과의 재회라는 희망,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기 위해 무관심한 자연과 친구를 데려간 잔인한 죽음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거둔다.

내가 예견했던 명성은 사라지고,
그 머리는 지상의 화환을 잃었지만,
나는 자연을, 아니, 죽음까지도 저주하지 않는다.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The fame is quench'd that I foresaw,
The head hath miss'd an earthly wreath:
I curse not nature, no, nor death;
For nothing is that errs from law. (73: 5-8)

테니슨은 죽음이 헬럼을 지상의 “명성”과 “화환”으로부터 떨어트려 놓았다고 믿고, 자연과 죽음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그는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을 통해 육체의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후 헬럼과의 재회라는 희망을 갖는다.⁵⁵⁾ 동시에 그는 자연과 죽음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행동은 헬럼을 되살리지도, 그의 상실에 위안을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연과 죽음은 법칙을 어기고 헬럼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는 신의 섭리로 인해 신의 곁으로 떠난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테니슨은 자연과 죽음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거두고 믿음을 통해 친구의 부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마침내 테니슨은 친구의 육신을 가져간 “죽음”(Death)이 그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친구의 죽음을 부정하던 그는 더는 죽음을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몸과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죽음에게 어떤 싸움도 걸지 않는다.

55) Alan Sinfield, *The Language of Tennyson's In Memoriam* (Oxford: Basil Blackwell, 1971), p. 24.

대지의 포용이 죽음과 낳을지도 모르는
어떤 천한 생명도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
...
나는 결코 죽음을 비난하지 않는다, 죽음이
지상에서 미덕의 쓰임을 가져갔다고 해서
나는 이식된 인간의 가치가
다른 곳에서 꽃피어 결실을 보게 될 것을 안다.

I wage not any feud with Death
For changes wrought on form and face:
No lower life that earth's embrace
May breed with him, can fright my faith.
...
Nor blame I Death, because he bare
The use of virtue out of earth:
I know transplanted human worth
Will bloom to profit, otherwise. (82: 1-4, 9-12)

테니슨은 죽음이 그의 외형을 바꾸더라도 내면, 즉 그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죽음이 헬럼의 육체를 가져갔지만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그를 한층 더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혼의 평화를 얻은 테니슨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며 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이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둘의 우정은 시간을 정복했기에, 그는 세월이 흘러도 영원할 우정을 강조한다.

나는 그대의 사랑을 원한다. 더 이상 지나치게
애도하는 것은 죄라는 생각이 들기에.
...
그 우정은 진정 시간을 정복하여
영원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해와 달도
이 우정의 한 조각도 떼어낼 수 없다.

I woo your love: I count it crime
 To mourn for any overmuch;
 ...
 Which masters Time indeed, and is
 Eternal, separate from fears:
 The all-assuming months and years
 Can take no part away from this: (85: 61-62, 65-68)

테니슨은 영혼불멸을 믿는다면 헬럼과의 재회가 실현될 것이고, 이는 시간조차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⁵⁶⁾ “시간”을 정복한 그는 죽음이라는 “두려움”마저 정복하고 영원한 우정을 성취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헬럼의 죽음을 애도하며 남은 삶을 보내기보다는 그와의 추억과 우정을 영원히 간직하며 현실을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테니슨은 헬럼의 죽음으로 시작된 상실과 회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영혼, 신을 향한 믿음을 되찾는다. 더 나아가 그는 자연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연을 통해 마침내 마음의 안정과 “평화”(Peace)를 얻는다.

소나기 후의 감미로운 바람이여,
 찬란한 저녁노을에서 일어나
 숲과 꽃이 만발한 초원 위를 감돌며
 천천히 숨을 내쉬며
 ...
 진홍빛 바다의 물결을 지나
 저 멀리 흐르는 향기로운 바람결에 실려
 동쪽 하늘의 별 속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평화’라고 속삭이는 곳으로.

Sweet after showers, ambrosial air,
 That rollest from the gorgeous gloom
 Of evening over brake and bloom
 And meadow, slowly breathing bare
 ...
 From belt to belt crimson seas

56) Arthur Hallam, *The Writings of Arthur Hallam* (New York: MLA, 1943), p. 138.

On leagues of odour streaming far,
To where in yonder orient star
A hundred spirits whisper 'Peace.' (86: 1-4, 13-16)

테니슨은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신성한 장소인 “평화라고 속삭이는 장소”에서 헬럼과의 재회를 고대하며 그의 상실과 슬픔을 “감미로운 바람,” “찬란한 저녁노을,” “진홍빛 바다의 물결,” “향기로운 바람결”과 같은 낭만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즉, 시인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는 행동을 통해 천사들이 있는 “평화”라는 장소로 들어가 마침내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고 영혼의 평화를 찾는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혼돈’ 속에서 시작되어 신과 자연의 통합에 의해 깨닫게 된 ‘새로운 창조 질서의 발현’으로 끝난다.⁵⁷⁾ 이것은 상실로 시작해 믿음의 회복으로 끝나는 『인 메모리엄』의 부제 “영혼을 찾는 과정”(The Way of the Soul)과 일치하는 것이다. 시인은 상실로 인해 회의에 빠지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혼, 즉 그의 믿음을 찾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또한, 제96편의 “정직한 의심에 믿음이 더 깃든다/진정, 어설픈 교리보다는”(There lives more faith in honest doubts/Believe me, than in half the creeds)[Sec. 96: 11-12]를 통해 테니슨은 “어설픈 교리”보다는 숨김없는 “정직한 의심”을 통해 더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살면서 각자의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의 시기를 적어도 한 번 겪은 경험하게 되지만, 이러한 시기는 삶에 있어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샐리(J. Shanley)는 “변화의 시작은 의심의 순간이다. 인간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거나 흔들릴 때, 또는 그가 어렵게 얻은 지식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그는 성장 직전에 있다⁵⁸⁾”라고 주장한다. 테니슨에게는 헬럼의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자 성장할 기회의 순간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그는 의심과 고뇌의 과정을 경험하고 믿음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그는 의심으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의심을 마주하고 고뇌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믿음에 도달한다. 또한, 그는 맹목적인 종교적 신념이 아닌, 친구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을 계기로

57) Gerald L. Bruns, “‘The Lesser Faith’: Hope and Reversal in Tennyson’s In Memoriam,”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Vol. 77, No. 2 (1978), p. 248.

58) John P. Shanley, *Doubt: A Parable*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Inc., 2005), p. 8.

삶과 죽음, 영혼불멸과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고뇌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신념을 찾아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그의 개인적인 극복 과정을 통해 비록 인간이 상실과 회의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극복한다면 결국에는 믿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테니슨은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영혼 불멸에 대한 회의와 같은 “어둠”을 통해 마침내 믿음과 희망이라는 강한 “빛”을 얻는다.

더 강한 자신의 믿음을 찾게 되었으니,
밤에는 하느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
어둠과 빛을 만들고,
빛이 있는 곳에서만 지내지 않고,

To find a stronger faith his own;
And Power was with him in the night,
Which makes the darkness and the light,
And dwells not in the light alone, (96: 17-20)

테니슨은 믿음이 빛뿐만 아니라 어둠에도 깃들여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깨우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는 빛을 상징하는 “하느님”이 밤에도 존재하며 빛과 어둠 모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이 실패나 상실이라는 어둠을 극복했을 때 그 무엇보다 찬란한 성공이자 희망이라는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러한 고뇌와 의심이라는 “어둠”을 경험한 테니슨은 “더 강한 자신의 믿음”을 찾을 뿐만 아니라 신의 사랑과 영혼불멸을 확신한다. 즉, 그는 진리를 향한 그의 개인적인 여정을 『인 메모리엄』에 반영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테니슨은 쓸모있는 금속이 되기 위해서 금속은 달구고 담금질 당하는 힘든 제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인간이 발전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한다는 그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도 금속과 마찬가지로 슬픔과 극복 과정을 통해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이란 목적 없는 금속이 아니라,

복판의 어둠 속에서 캐내어,

타오르는 공포로 뜨겁게 달구고,

흐르는 눈물의 용액에 담금질했다가,

운명의 충격으로 두드려서

모양을 빚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금속이다.

That life is not as idle ore,

But iron dug from central gloom,

And heated hot with burning fears,

And dipt in baths of hissing tears,

and batter'd with the shocks of doom

To shape and use. (118: 20-25)

테니슨은 인간이 “공포,” “눈물,” 그리고 “충격”을 극복한다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그는 비극과 절망에서 희망이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근거하여 믿음이 희망뿐만 아니라 절망과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한다.⁵⁹⁾ 이것은 어둠에는 빛이, 상실에는 사랑이, 의심에는 믿음이, 그리고 죽음에는 삶이 존재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 즉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테니슨은 친구의 죽음을 통해 깊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영혼불멸의 희망을 통해 상실과 고뇌의 과정을 극복하여 한층 더 성숙한 인간이 된다. 그는 절망과 비극이라는 경험이 좌절과 실패가 아닌 믿음을 되찾고 삶의 의지와 목표를 성취할 기회라는 희망을 갖는다.

테니슨은 정직한 의심의 과정을 거쳐 강한 믿음이라는 빛을 되찾게 되고, 자연을 적대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동시에 그는 밤하늘에 떠 있는 두 별을 바라보며 영혼불멸에 대한 확신과 헬럼과의 재회라는 희망을 갖는다.

59) Bruns, p. 260.

감미로운 헤스퍼와 포소퍼, 두 개의 이름
하나이면서 처음과 나중
그대는 나의 현재와 과거처럼
그대의 장소가 변하나 그대들은 똑같다.

Sweet Hesper-Phospor, double name
For what is one, the first, the last,
Thou, like my present and my past,
Thy place is changed: thou art the same (121: 18-21)

저녁별과 샛별은 떠오르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헤스퍼”와 “포소퍼”로 불리지만 하나의 동일한 별인 금성(Venus)이다. 그러나 테니슨은 두 별의 이미지를 헬럼과 함께한 “과거”와 헬럼이 없는 “현재”를 묘사하는 상징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분열된 정체성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즉, 위치가 바뀌어도 저녁별과 샛별이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테니슨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은 다르지만 두 시간대는 그의 삶의 일부이다. 테니슨은 그와 헬럼이 함께하는 육체적 장소는 변하지만, 둘의 사랑과 우정의 크기는 이전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침내 “맹목적으로 움직이던 별들”(the stars blindly run)[Sec. 3: 5]이 믿음을 통해 “하나”가 되어 질서를 이루게 된다.

테니슨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변한다는 것에는 부정할 여지가 없으나 인간의 영혼은 불변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믿음을 부정하는 지질학적 지식을 반박한다.

언덕은 그림자이고, 언덕은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흘러,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언덕은 마치 안개처럼 녹는다, 단단한 땅들은
구름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사라진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영혼 속에서 살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꾸며, 그것을 진실로 여길 것이다.
비록 내 입술이 작별을 고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이별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

The hills are shadows, and they flow

From form to form, and nothing stands;
They melt like mist, the solid lands,
Like clouds they shape themselves and go.

But in my spirit will I dwell,
And dream my dream, and hold it true;
For tho' my lips may breathe adieu,
I cannot think the thing farewell. (123: 5-12)

테니슨은 삶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내심 있는 고찰과 천문학과 지질학에 대한 지식을 통해 죽음이 세상과의 “이별”이 아닌 “영혼”으로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진리를 깨우치게 된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언덕은 침식과 침적의 퇴적작용을 반복하다 결국에는 사라지지만, 인간의 육체는 이승을 떠나 소멸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그의 신념을 찾는다.

긴 “의심”(doubt) 과 “두려움”(fear)의 과정을 거친 테니슨은 마침내 “아버지”(his father), 즉 신의 존재를 느끼며 영혼의 불멸성을 확신한다.

(마음이) 일어나 대답했다, ‘나는 느꼈다.’고

의심과 두려움에 싸인 어린이같이
그러나 그 몽매한 외침이 날 슬기롭게 해,
그때 나는 우는 어린 아이였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가까이에 있음을 아는 우는 아이였다.

Stood up and answer'd 'I have felt.'

No, like a child in doubt and fear;
But that blind clamour made me wise;
Then was I as a child that cries,
But, crying, knows his father near; (124: 16-20)

테니슨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실제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 신의 존재를 가까이

서 느끼고 있다. 제54편에서 그는 자신을 “말을 못 하고 울기만 하는 아이”(And with no language but a cry)[Sec. 54: 20]라고 묘사했다면, 현재의 그는 사색과 회의의 과정을 거쳐 “아버지가 가까이 있음을 아는 우는 아이”가 된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종교에 대한 의심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고뇌의 과정을 통해 신은 항상 그의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고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한다.

또한, 테니슨은 견뎌야 할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위대한 사랑의 상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으므로 이 모든 슬픔과 상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로를 모두에게 전한다.

그러나 나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하늘의 전서 비둘기처럼 가볍게
나는 내가 견뎌야 할 무게를 사랑했다.
그것은 사랑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지칠 수 없었다,
위대한 사랑이 갈라냈을 때
나 혼자만의 고통을 둘로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그에게 주었을 때

But this it was that made me move
As light as carrier-birds in air;
I loved the weight I had to bear
Because it needed help of Love:

Nor could I weary, heart or limb,
When mighty Love would cleave in twain
The lading of a single pain,
And part it, giving half to him. (25: 5-12)

테니슨은 “위대한 사랑”이 있기에 그의 인생을 뒤흔든 변화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사랑”이란 창조가 새로운 탄생으로 이끌 영적 에너지라고 여기고, 그 사랑을 통해 그의 깊은 상실과 고통의 “무게”를

마주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⁶⁰⁾ 이것은 사랑이 인간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사랑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침내, 테니슨은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진리”(true)를 깨닫는다.

나는 진리로 여긴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느낀다, 내가 몹시 슬퍼할 때라도
사랑해보고 잃는 것이 더 낫다.
전혀 사랑을 못 해본 것보다는

I hold it true, whate'er befall;
I feel it, when I sorrow most;
'Tis better to have loved and lost
Than never to have loved at all. (27: 13-16)

사랑해보지 못한 자는 사랑이 제공하는 행복함과 소중함을 절대 느끼지 못한다. 테니슨은 헬럼과의 우정과 사랑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이라는 고통도 겪는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컸기에 상실의 고통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친구와의 사랑과 추억이 고통을 승화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테니슨은 상실과 회의를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그는 시를 통해 사랑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걱정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랑을 나눈 후 잃고 슬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테니슨은 헬럼과 영혼의 재회라는 믿음을 확신하고 그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느낀다. 시인은 현실의 눈이 아닌 사랑과 믿음의 눈을 통해 헬럼의 모습과 목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면 헬럼의 육체는 멀리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테니슨 곁에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대 멀리 있지만, 언제나 가깝다.
나는 여전히 그대를 소유하며, 나는 즐거워한다.

60) Eugene R. August. "Tennyson and Teilhard: The Faith of *In Memoriam*," *PMLA*, Vol. 84, No. 2 (March 1969), p. 224.

나는 그대의 음성에 둘러싸여 번성하니,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 그대를 잃지 않을 것이다.

Far off thou art, but ever night
I have thee still, and I rejoice;
I prosper, circled with thy voice;
I shall not lose thee tho' I die (130: 13-16)

테니슨은 자연과 신앙의 조화를 통해 헬럼과 육체를 넘어선 영혼의 만남을 유지한다. 그는 과학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 신앙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사랑은 영원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나의 사랑은 이전의 사랑을 포함하여
나의 사랑은 이제 훨씬 더 거대한 열정이다.
비록 그대 하느님과 자연과 섞여 있어도,
나는 그대를 더욱 더 사랑한다.

My love involves the love before;
My love is vaster passion now;
Tho' mix'd with God and Nature thou,
I seem to love thee more and more. (130: 9-12)

상실과 회의를 극복하고 진리를 깨달은 테니슨은 그와 헬럼과의 관계가 육체를 넘어선 영적 만남을 통해 영원할 것을 확신한다. 그는 죽음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의심도 믿음의 일부라는 “순환 이미지”(circle image⁶¹)를 받아들이고, 마침내 헬럼과 신을 향한 “거대한 열정”과 사랑을 확신한다. 이것은 테니슨이 헬럼의 죽음 이후 상실을 극복하려 노력하지만, 다시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믿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랑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영혼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테니슨은 상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되찾고자 하지만,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되고, 고뇌의 과정을 거쳐 깨달음을 얻는 순환, 즉 이상적인 존재가 되는 인

61) James G. Taaffe, “Circle Imagery in Tennyson’s *In Memoriam*,” *Victorian Poetry*, Vol. 1, No. 2 (Spring 1963) p. 125.

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인간이 신과 자연의 이치,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를 이해할 때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는 사랑이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한다.

『인 메모리엄』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도시로 시작되지만, 여동생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시로 마무리된다. 즉, 테니슨은 발시의 주제를 한 부부의 시작을 축하하는 결혼식으로 설정하여 더는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결혼이라는 상징은 슬픔과 회의를 기쁨과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 자신을 향한 축하의 의미도 담겨있다.

비록 나 그때 이후 세 곱의 삼년 가량을
헤아려 왔건만, 세월이 왔다 가며
피를 다시 만들고 육신을 바꾸어 놓았어도,
그러나 사랑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졌다.

나는 죽은 슬픔을 사라져가는 노래 속에
더는 오래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저 단단하게 세워지고
굉장한 고요 속에서 빛어진 조각같이 할 것이다.

Tho' I since then have number'd o'er
Some thrice three years: they went and came,
Remade the blood and changed the frame,
And yet love is not less, but more;

No longer caring to embalm
In dying songs a dead regret,
But like a statue solid-set,
And moulded in colossal calm. (Epilogue: 9-16)

테니슨은 헬럼을 향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단단하게 세워진 조각”에 비유하며 더는 헬럼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굳건한 의지를 표현한다. 그

는 헬럼의 죽음 후 3번의 크리스마스, 즉 삼 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그의 “죽은 슬픔”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따라서 그는 의심과 절망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우친다. 동시에 추억 또는 의심과 같은 시인의 복합적인 경험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⁶²⁾ 그는 사랑과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동생의 새로운 미래를 축하하며 『인 메모리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그는 영혼불멸과 사랑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헬럼과의 우정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한다.

테니슨은 친구를 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느끼는 상실과 고뇌, 회의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개인적인 상실에서 벗어나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라는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고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리에 도달한다. 그는 과거와 현재, 사랑과 상실,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믿음을 찾는다. 또한, 그는 과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종교를 통해 인간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을 깨닫는다. 그는 『인 메모리엄』을 통해 인간은 변화에 적응하고 절망과 고뇌의 과정을 거쳐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테니슨은 상실과 회의, 그리고 고뇌와 극복의 순환 과정을 통해 사랑과 믿음의 중요성을 느끼고 영혼불멸과 인류의 발전이라는 진리를 깨닫는다. 더불어 테니슨 자신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 겪은 상실감과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고찰을 통해 그가 염원하던 인생의 목표를 깨닫게 되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 모두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들 개개인의 상실과 고뇌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62) Gransden, p. 51.

VI. 결론

테니슨은 『인 메모리엄』을 통해 과학적 이성과 종교적 믿음의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서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인간의 존재 의미와 영혼불멸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소중한 이를 잃은 상실감의 극복 과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서정적으로 다루며,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고심한다. 헬럼의 죽음, 과학과 종교의 갈등, 그리고 무관심한 자연의 모습은 테니슨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주지만, 그는 믿음을 통해 자연과 죽음, 궁극적으로 인간과 신의 존재를 향한 회의적인 태도를 거두고 과거와 현재, 사랑과 죽음이 인간의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테니슨은 헬럼의 죽음을 통해 신의 사랑과 영혼불멸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상실과 의심의 과정을 경험한다. 지질학과 진화론이 제시하는 과학적 이론들은 신과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며 19세기 빅토리아인들의 사회적, 종교적 가치관을 뿌리부터 흔들여 놓는다.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혼란에 큰 영향을 받은 시인 테니슨은 영혼불멸, 인간의 삶의 가치, 그리고 신을 향한 믿음을 잃는다. 그는 자연을 통해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혼불멸의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했다는 믿음을 비웃는 듯 신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당대의 종교와 과학적 가치관의 대립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자연과 죽음이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하며, 인간의 목숨을 빼앗고, 삶의 가치를 파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공포와 무기력감에 휩싸인다. 그는 회의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신념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된 종들처럼 인간 또한 언젠가 멸종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사실만 깨닫는다. 이에 테니슨은 인간의 끝은 죽음밖에 없으며, 영혼의 불변성이 없는 생은 무의미하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결국,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에서 느낀 상실감이 영혼의 부재라는 두려움과 융합되어 그의 절망과 회의는 더 깊어진다.

테니슨은 17년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 경험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가치관의 변화를 131개의 시로 풀어나가고, 이후 상실의 극복과 믿음의 회복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시를 자연스럽고 통일성 있게 재배열한다. 그는 시 창작이라는 과정을 통해 친구를 잃은 비애를 사랑과 믿음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의 극복 과정은 슬픔에서 기쁨으

로, 믿음의 붕괴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직결된 것이 아니다. 테니슨은 헬럼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좌절하지만 동시에 행복해하고, 희망을 찾지만 다시 절망에 빠지는 한 개인의 복잡한 내적 극복 과정을 자연스럽게 해석해나간다. 그는 의심과 믿음의 회복, 그리고 고뇌의 과정을 통해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영혼불멸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다.

테니슨은 회의감의 원인 중 하나인 종교와 과학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과학과 종교를 결합해 이성의 눈을 벗어나 지혜, 즉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헬럼과의 사랑과 우정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그는 그를 두려움의 나락으로 빠트린 과학적 지식을 통해 믿음을 되찾게 된 것이다. 또한, 테니슨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죽음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지 고찰한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은 그의 죽음과도 같았기에 그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란 나락에 빠진 것과 같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친구의 육체적 사별이라는 상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트리거나 영혼불멸이라는 믿음을 잃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습득할 때, 인간은 멸종하는 동물과는 다른, 즉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테니슨은 회의와 의심의 과정을 통해 영혼 불변성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다.

테니슨은 절망에 빠져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슬픔과 고뇌를 계기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한 시인이다. 그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매개로 인간의 신체적 유한성, 즉 죽음을 초월하게 되고 신을 향한 사랑을 통해 인간의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며 한층 더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 어둠과 빛,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지식과 지혜, 과학과 종교 등과 같은 문제는 시인이 느낀 영혼 불멸에 대한 회의와 믿음의 관계와 유사하다. 믿음이 없다면 회의를 느낄 수 없다.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어둠이 없다면 빛의 가치를 알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상실과 고통이라는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거쳐 인간의 가치를 느끼고 삶의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테니슨은 이러한 모순되는 요소들이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가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과 회의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테니슨은 『인 메모리엄』을 통해 의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의심과 고뇌의 원

인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는 인간을 멸종으로 이끌 것이며, 본능적으로 원하는 욕구만 충족하며 사는 삶은 동물의 삶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간의 삶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상실을 수용하며 변화를 마주하는 데 의미가 있다. 테니슨은 인간의 가치가 지식이나 종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 양립된 가치를 향한 저항과 수용, 조화라는 한 개인의 정직한 사색 과정을 통해 부여된다는 진리를 깨우치며 『인 메모리엄』이라는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그는 이러한 고뇌의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해결책을 얻었을 때, 슬픔과 상실이 진정한 사랑과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 메모리엄』에서 테니슨은 사람이 살며 한 번쯤은 경험해볼 상실이라는 문제와 극복 과정을 서정적이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그의 관점으로 진솔하게 풀어나간다. 당대 영국인들의 가치관이 흔들린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서 테니슨은 사랑과 믿음을 통해 그가 마주한 내적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되찾은 시인이다. 동시에 테니슨은 역경을 마주할 때 믿음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상실, 회의, 믿음, 그리고 극복 과정을 순차적으로 경험하지만, 종종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즉, 그는 사랑과 죽음,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과학과 종교 등의 상반되는 요소들을 통해 회의와 회복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사랑과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되찾는다.

결론적으로 테니슨의 『인 메모리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에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거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라는 나라의 한 시인의 고뇌 과정에 공감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테니슨이 그의 정서적 불안감과 고뇌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은 큰 위로를 받는다. 따라서, 『인 메모리엄』은 상실과 회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랑과 믿음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Bibliography

- 이세순 『인 메모리엄』. 한빛문화, 2008.
- Armstrong, Isobel. "The Collapse of Object and Subject: *In Memoriam*," ed. Herbert F. Tucker, *Critical Essays on: Alfred L. Tennyson*. New York: G. K. Hall and Co., 1993: 136-152.
- August, Eugene R. "Tennyson and Teilhard: The Faith of *In Memoriam*," *PMLA*, Vol. 84, No. 2, 1969: 217-226.
- Beasley, Violet E. *Alfred Lord Tennyson: Memory in Tennyson's Poetry*. London: Ann Arbor UMI, 1983.
- Benson, C. A. *Alfred Tennyson*. New York: E.P. Dutton and Co., 1907.
- Bradley, C. A. *A Commentary on Tennyson's In Memoriam*. London: MacMillan, 1902.
- Bruns, Gerald L. "'The Lesser Faith': Hope and Reversal in Tennyson's *In Memoriam*,"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sophy*, Vol. 77, No. 2, 1978: 247-264.
- Buckley, Jerome H. *The Growth of a Poet*. Cambridge: Harvard UP, 1974.
- _____. *The Victorian Temper: A Study in Literary Culture*. New York: Vintage Books, 1964.
- Cosslett, Tess. *The Scientific Movement and Victorian Literature*. New York: The Harvester Press, 1982.
- Daiches, David. *God and the Poets*. Oxford: Clarendon Press, 1984.
- Davis, Philip. *The Oxford English Literary History. Vol. 8: 1830-1880 The Victorians*, Oxford: Oxford UP, 2002.
- Dean, Dennis R. *Tennyson and Geology*. Lincoln: The Tennyson Society, 1985.
- Eliot, T.S. *In Memoriam, Modern Critical Views: Alfred Lord Tennyson*.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5.
- Gransden, K. W. *Tennyson: In Memoriam*. London: Edward Arnold, 1964.
- Gray, Erik *In Memoriam: Alfred Lord Tennyson 2nd Ed.* New York: W.W. Norton & Co., 2004.
- Green Joyce. "Tennyson's Development during the 'Ten Years' Silence'(1832-1842)," *PMLA*, Vol. 66, No. 5, (Fall 1951): 662-697.
- Hallam, Arthur. *The Writings of Arthur Hallam*. New York: MLA, 1943.
- Hass, Robert B. "The Mutable Locus Amoenus and Consolation in Tennyson's

- In Memoriam*,”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Vol. 38, No. 4, (Fall 1998): 669-687.
- Hayes, J. W. *Tennyson and Scientific Theology*. New York: Haskell House Publishers, 1977.
- Henchman, Anna. “The Globe We Groan In: Astronomical Distance and Stellar Decay in *In Memoriam*,” *Victorian Poetry*, Vol. 41, No. 1, (Spring 2003): 29-46.
- Hewitt, Martin. “Why the Notion of Victorian Britain Does Make Sense,” *Victorian Studies*, Vol. 48, No. 3, (Spring 2006): 395-438.
- Jay, Elisabeth. *Faith and Doubt in Victorian England*. London: MacMillan, 1986.
- Johnson, Wendell S. *Sex and Marriage in Victorian Poetry*. London: Cornell UP, 1975.
- Jump, John D. *An Introduction to Alfred Tennyson: In Memoriam, Maud, and Other Poems*. London: J.M. Dent, 1974.
- _____. *Writers and Their Background: Tennyson*. London: Bell & Sons, 1973.
- Langbaum, Robert. “The Dynamic Unity of In Memoriam,” ed. Harold Bloom, *Modern Critical Views: Alfred, Lord Tennyson*, 1985: 57-76.
- Leonard, David C. “Tennyson, Chambers, and Recapitulation,” *The Victorian Newsletter*, Vol. 56, (Fall 1979): 7-10.
- MacLuhan, Marshall. *Alfred Lord Tennyson: Selected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 Mazzeno, Laurence W. *Alfred Tennyson: The Critical Legacy*. New York: Camden House, 2004.
- Nicolson, Herold. *Tennyson: Aspects of His Life, Character and Poetry*. London: Constable and Co. Ltd., 1949.
- Noyes, Alfred. *Some Aspects of Modern Poetry*. New York: Frederick A. Stokes Co., 1924.
- Peltason, Timothy. *Reading In Memoriam*. New Jersey: Princeton UP, 1985.
- Ricks, Christopher. *Tennyson 2nd ed*. London: MacMillan, 1989.
- Tennyson Alfred. *The Poems of Tennyson*. ed. Christopher Ricks, New York: W. W. Norton, 1969.
- Rosenberg, John D. “Stopping for Death: Tennyson’s *In Memoriam*,” *Victorian Poetry*, Vol. 30, No. 30, (Fall 1992): 291-330.
- Shanley, John P, *Doubt: A Parable*.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 Group, Inc., 2005.
- Sinfield, Alan. *Alfred Tennyson*.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_____. *The Language of Tennyson's In Memoriam*. Oxford: Basil Blackwell, 1971.
- Taaffe, James G. "Circle Imagery in Tennyson's *In Memoriam*," *Victorian Poetry*, Vol. 1, No. 2, (Spring 1963): 123-131.
- Tennyson, Charles. *Tennyson*. London: Routledge, 1976.
- Tennyson, Hallam. *Alfred Lord Tennyson: A Memoir by His Son, Vol. I*. London: MacMillan, 1897.
- Willey, Basil. *More Nineteenth Century Studies: a Group of Honest Doubters*. London: Chatto & Windus, 1956.
- Wilson, William A. "A Victorian Philology and the Anxiety of Language in Tennyson's *In Memoriam*,"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Vol. 30, No. 1, (Spring 1988): 28-48.
- Zuckermann, Joanne P. "Tennyson's *In Memoriam* As Love Poetry," *Dalhousie Review*, Vol. 51, No. 2, (Summer 1971): 202-217.

<Abstract>

A Study on the Loss, Doubt, and Overcoming Process
in Alfred Tennyson's *In Memoriam*

Minji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Yoon-Deok Hur)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ss, doubt, and overcoming process in Tennyson's *In Memoriam*. Tennyson was a poet in the Victorian Age when society was filled with confusion and doubt. In his poetry, Tennyson expressed his deep sorrow and lost his faith in life itself. With the death of Hallam and chaos in Victorian society, he felt eternal darkness and showed a skeptical attitude towards the meaning of life, the after-life, and God. He tried to deal with the doubts that he had for almost seventeen years after Hallam's death through writing the poem.

In Memoriam is the poem that starts with doubts but ends with faith, hope, and a sense of fulfillment. However, it was not a perfect process; Tennyson stumbled over his past memory with Hallam and fell back. Though, in the end, he overcame his doubts and realized that only love and faith can give humans the power to conquer the loss of loved ones, to move on, and ultimately to believe in human being. Furthermore, he realized that with the eye of knowledge and reason people cannot see both the immortality of the soul and God, but they can with the eye of love and faith. He tells us that we all can overcome the loss with love, see the light through the darkness, and have true faith with honest doubts.

In *In Memoriam*, Tennyson says that facing one's struggle and doubt will lead to

the “The Way of the Soul”, which means that it can show the way to the belief in human beings and God. Tennyson experiences from loss to consolation through the acceptance and harmony between loss and hope, life and death, and religion and science, and ultimately gives human race hope to fight for what he or she truly believes.